



일본경제 2011년 제로 성장 후 'V자' 성장 전망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세계은행은 6월 7일 반기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1년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0.1%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함.
 - 세계은행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의 2011년도 2/4분기 실질GDP가 1/4분기 3.7% 감소(전년동기대비 기준)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, 2012년도에는 급속한 경제회복세(2.6% 성장)를 예상함으로써 'V자' 회복을 전망함.
- 일본의 주요 민간연구기관들도 대체로 'V자 회복을 전망하면서 지진여파에 의한 경제침체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.
 -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증권은 일본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빠른 회복을 통해 'V자'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NLI리서치연구소도 3월, 4월, 또는 5월에 경기가 위축되겠지만 올 회계연도 전체로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 - 블룸버그 통신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, 경제전문가들은 일본경제가 4~6월(2/4분기)에 전년동기 대비 3% 감소한 뒤, 3/4분기와 4/4분기에 각각 2.0%, 5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
- 앞선 6월 1일 일본은행(BOJ) 총재도 공급망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산업생산이 되살아나고 있어 일본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낙관함.
 - 다만, 일본 주요 언론은 현 일본총리의 퇴진문제와 관련된 정국혼란이 일본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한편,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봄.

(일본경제신문, 6/8, 요미우리신문, 6/8, Bloomberg, 6/3)